

전남

대불산단 식당들 외상값 '발 동동'

최대 2천만원까지 못받아... 경영난 호소

식당주들 "관리소측 근본대책 강구해야"

대불 국가산업단지내 식당들이 경기침체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직원들이 먹는 음식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식당들은 한 끼당 약 3천500원의 가격에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고 있다. 또 다른 K식당 역시 1천800만원에 달하는 외상값 때문에 문닫기 일보직전이다.



"갯벌생물 이렇게 생겼네"

26일 개장한 합평 돌머리 해수욕장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갯벌 생태체험을 하고 있다. 오는 8월 9일까지 운영되는 갯벌체험은 갯벌 전문가의 지도로 갯벌의 생성과정과 갯벌생물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침목 탐방로를 산책하며 바다생물을 채집하고 관찰한다.

전남, 저수지 건설 예산확보 총력

농업용수난 해소 82곳 정부 지원 건의

전남도가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499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99억원을 정부 예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남 국내 최대 은퇴자 도시 조성

해남군 내내면 철도 간척지에 6천400가구

해남군 내내면 철도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은퇴자 도시가 조성된다.

이 사업은 미라비다, 미래 주거환경개발연구소가 주관하고 전남개발공사, 해남군이 공동 참여하는 개발경영 방식으로 추진된다.

목포 유달산 조각공원 다양한 볼거리 새단장

목포시 유달산 조각공원이 새롭게 단장됐다. 지난달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조각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근 외국 작가 작품을 추가해 설치하고 관람로를 새롭게 정비했다.



'흑색토마토'로 건강 챙기세요

전남농기원 첫 개발... 토마토보다 항암효과 2배

기능성 흑색토마토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최근 외국산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흑색 토마토 육성에 성공했다.

소외계층 찾아 '나눔의 의료봉사'

농어촌공-성심병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중원)와 하남 성심병원은 지난달 26일 광산구 삼도동 가삼마을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독거노인에 '희망의 빛' 드려요

GS칼텍스, 여수서 봉사활동

GS칼텍스가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Large table containing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 Jeonnam, including Jeonju, Gwangju, and Mokpo. Columns include district name, address,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